

분수대, 시민 피서장소로 제공

전주시 덕진구, 만성지구 2호 근린공원 바닥분수 등 운영 기록적인 폭염 지속에 따라 가족단위 나들이객 발길 이어

전주도심 속 분수대가 올 여름 시민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피서장소로 제공됐다.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6월부터 시민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하가지구 하늘공원과 만성지구 2호 근린공원 바닥분수, 예곡시티 세병공원, 아중리 아람길 공원 고사분수, 호성동 진흥W파크 벽천분수 총 5개의

도심 속 분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지속되면서 덕진구 권역에 설치된 바닥분수와 분수대 등 수경시설에 어린이 등 가족단위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만성지구 어린이공원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31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곳에서 물놀이 즐길 수 있다.

만성지구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의 경우, 2개 이상의 놀이시설을 하나로 묶은 조합놀이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벌써부터 어린이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덕진구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성지구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시설을 제외한 바닥분수와 벽천분수, 고사분수 5개소는 운영기간을 기존 8월에서 9월 중순까지 확대·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송효철 기자

덕진구는 물놀이 시설의 수질 악화로 인해 시민들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운영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해나가고 있으며 동시에 바닥청소와 물교환,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해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집에서 가까운 분수대 등 수경시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며, "수경 시설 운영이 끝나는 날까지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분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수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사람중심의 도시·건축

전주시는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청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사람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한 도시·건축 분야의 다양한 선진사례를 배우고 전주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 인권침해사건 조사위 "백남기, 과잉진압으로 사망"

과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경찰 자체 기구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내렸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종로구 서린교차로에서 경찰의 살수에 의해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진상조사위는 19차례에 걸쳐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침 ▲경비계획 ▲집회금지통고 ▲경력동원 및 차벽설치 ▲살수행위와 피해자 부상 당시 상황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한 뒤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 등을 검토했다.

조사위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위험상황 아닌데 직사살수 신체 자유 침해" 밝혀

아남에도 백씨를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했고,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경찰은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한 데다 혼합살수 방법은 법령에 열거된 사용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오후 4시30분부터 11시10분까지 6시간40분 동안 202톤의 물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최후방 440리터, 염료 120리터를 혼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씨는 제4차 살수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해야 하지만 물줄기가 백씨의 머리를 향한 점은 살수차 운용 지침이 정한 사용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위는 판단했다.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은 시민들이 청와대 경호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1차-2차-3차 차단선을 절대 방해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무정차 등 봉쇄 작전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위는 경찰력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발생 당일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738대의 버스, 약 2만여명에 달한다. 이 같은 차벽 설치 등 차단 행위에 대해선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집회 당일 이후 경찰의 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위의 시각이다. 특히 경찰은 백씨가 사망

한 이후 일명 '빨간우의 의혹'을 추가해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하자 이를 집행하기 위해 59개 부대 5300여명을 동원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인 2015년 11월 빨간우의를 입은 집회참가자에 대해 신원확인을 하고 가격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집시법과 일반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빨간우의와 백씨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부검영장이 기각되자 2016년9월 제3의 의뢰에 의한 사망 의혹을 추가해 부검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조사위는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심사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하라"며 "해당 집회와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주최측과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뉴스1

이용하기 어려웠던 인후3동 주민센터 확장·이전

덕진구, 내년 5월 공사 완료키로

공간이 협소해 이용하기 불편했던 전주시 인후3동 주민센터가 확장·이전된다.

인후3동 주민센터는 현재 전주시 평생학습센터(덕진구 구충목로 11) 1층에 입주해 60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에서 민원업무가 이뤄지고 있어 그간 주민센터 이용자는 주민들의 신속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21일 덕진구에 따르면 현 주민센터 인근 덕진구 인후동1가 886-5와 1필지에 총사업비 45억원(건물매입비 25억원, 리모델링 20억원)을 투입, 부지면적 909.5㎡, 건물 연면적 2,979㎡, 지상5층 규모의 청사로 확장·이전할 예정이다.

덕진구는 오는 10월까지 리모델링 실시를 마무리하고, 11월부터는 공사발주에 들어가 내년 5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덕진구는 향후 인후3동 지역주민과 자생단체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덕진구는 당초 인후3동 청사 신축을 추진했지만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기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덕진구는 지난해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왔으며 주민센터 위치 이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부지 건물을 발 빠르게 협의·매입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기존 동 주민센터는 협소한 민원업무 공간과 주민 자치프로그램실 주차공간으로 주민들이 각종 민원해결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새롭게 단장하게 될 주민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이용하는 주민들 누구나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중심의 열린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에너지자립도시' 시민 참여로

전주시, 오늘부터 이틀간 에너지의 날 기념 행사 열어 우리동네 기온 측정 결과·얼음조각 퍼포먼스 등 진행

올 여름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 자립문화 확산을 위한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전주시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에너지 시민연대는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주 시청강당과 전주시네마타운에서 '2018 제15회 에너지의 날'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의 날'은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 8월 22일을 기념해 에너지 전력수요 급증과 온실가스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온난화로 물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이듬해인 2004년부터 매년 전국에서 열리는 행사다.

"불을 끄고 벌을 쫓아내자! 평화의 에너지"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22일에는 전주 시청강당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우리 동네 기온 측정 결과 발표 △얼음조각 퍼포먼스 △에너지 절약 다짐 서약 및 북극곰

인증샷 △자전거 발전기 체험 △향초 만들기 △LED조명 만들기 △별자리 행성 관측 △환경 매직, 수리터 마술 공연 △안태상 밴드공연 △변신사육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오후 9시부터 5분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사용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등 끄고 가족과 대화하기'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23일에는 오후 7시부터 전주시 네마타운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으로 야기된 심각한 환경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알바트로스'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역대 최악의 폭염 속에 급증한 전력사용으로 인한 에너지문제와 일회용품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시민들이 인식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경북 봉화 소천면사무소 70대 귀농인 염총 씨·1명 중상 2명 숨져

21일 오전 경북 봉화군의 한 사할과 소천면사무소에 김모(77)씨가 침입해 염총을 밟아, 스님 1명이 다치고 공무원 2명이 숨졌다.

법원에 사용된 염총은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이날 오전 8시께 소천파출소에서 출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봉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15분께 봉화군 소천면의 사할에 염총을 들고 침입해 스님에게 총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스님은 어깨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오전 9시30분께 소천면사무소를 찾아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에게 총을 발사했다.

면사무소 직원인 손모(48·민원담당 행정6급)씨와 이모(38·민원담당 행정8급)씨는 가슴과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당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손씨와 이씨 모두 숨졌다.

특히 김씨는 2014년 11월 봉화로 귀농을 한 귀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평소 물 문제로 스님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2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이민정씨 등 5명 시상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018년 2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21일 전주 시장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 표창장을 받은 주인공은 일반인 대상 서곡문화관 모퉁이작은도서관의 이민정(48, 여)씨는 도서관 운영 봉사활동, 이정희(44, 여)씨는 미소뜰도서관의 도서정리 및 운영 봉사활동, 남연심(58, 여)씨는 태평동 자율방범대 봉사활동을 베풀었다.

청소년대상으로 설서운(17)양은 시내버스 시내모니터단 및 해설과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 봉사활동을 했고 임경민(17)양은 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미술협회 미술전공보조 봉사활동을 벌였다. /송효철 기자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018년 2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21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으뜸자원봉사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 태풍 '솔릭' 북상 따라 공원시설 전면점검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강풍 및 집중호우를 동반한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22일부터 24일까지 탐방로·야영장 등 주요 공원시설을 전면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덕유산국립공원은 태풍 영향권인 21일부터 비상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22일부터 24일까지 탐방로 13개 구간과 덕유대야영장, 대피소(삿갓재, 향적봉) 등의 공원시설을 전면점검하여 태풍으로 인한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위중환 탐방시설과장은 "제19호 태풍의 영향이 예상되는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불법영업 인형뽑기방 '계 셋거리'... 덕진구, 25일까지 집중 지도단속

덕진구가 청소년이 사행성 게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영업중인 인형뽑기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역·아중리 12개소와 전북대 16개소, 송천동 6개소 총 34개 인형뽑기방이 4개 권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동로 인형뽑기방도 60곳에 달해 총 94개의 인형뽑기방이 해당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형뽑기방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출입시간과 영업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구는 불법영업 점검반(1개반 3명)을 편성, 인형뽑기방이 집중된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준수여부 △영업시간

준수여부 △사행성 경품 제공여부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동시에, 구는 영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 및 영업시간 준수 안내문자 발송 △관련법규 준수사항 안내문 우편발송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경비 가입 독려 등을 병행기로 했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계도 후, 재차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덕진구는 지난 4월에도 상반기 인형뽑기방 집중계도 및 단속기간을 운영했으며, 총 67건을 적발해 계도서를 부착하고, 이중 53대는 자진철거를 유도한 바 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앞으로도 지

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하여 인형뽑기방이 청소년들의 탈선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범죄 장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술 취해 전 부인 폭행 40대 입건

아이들을 보여 달라며 전 부인을 찾아가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1일 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전남 자정계 익산시 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